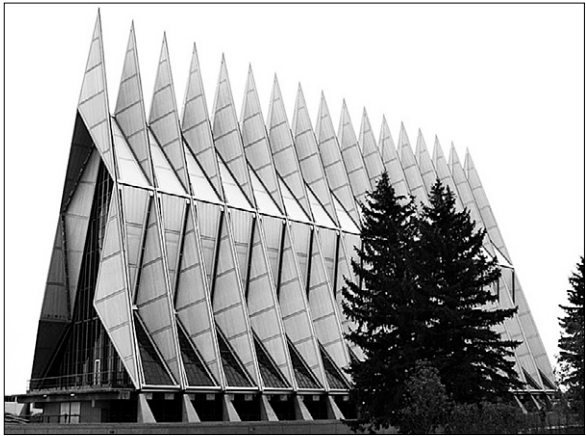


해외 WORLD

美 최초 사관학교 법당 생겨

콜로라도주 공군사관학교서 종교편향 잠재우기 위해 설립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위치한 미 공군사관학교가 학교 내 종교시설로 군법당을 짓고 법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미 공군사관학교는 미국 내 사관학교 중 유일하게 불교 법당을 갖추게 됐다.



美 콜로라도 주의 공군사관학교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 학교는 최근 이 시설 내에 군법당을 마련해 매주 수요일 법회를 열고 있으며 이웃종교의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군법당은 사관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종교편향을 잠재우기 위해 세워졌다. 2006년 보수주의 개인교인들의 적극적인 교내 선교활동에 대한 항의가 빚발치자 학교가 교내 종교시설에 전통양식을 갖춘 군법당을 세운 것.

프레데릭 렌즈(Frederick P. Lenz) 재단은 미국 불교 증흥을 위해 300피트 공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을 지원했다. 법당의 바닥은 대나무, 벽은 삼나무로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공사 계획을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지만 군인인 만큼 항상 드는 의문

는 종교편향을 잠재우기 위해 세워졌다. 2006년 보수주의 개인교인들의 적극적인 교내 선교활동에 대한 항의가 빚발치자 학교가 교내 종교시설에 전통양식을 갖춘 군법당을 세운 것.

프레데릭 렌즈(Frederick P. Lenz) 재단은 미국 불교 증흥을 위해 300피트 공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을 지원했다. 법당의 바닥은 대나무, 벽은 삼나무로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공사 계획을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지만 군인인 만큼 항상 드는 의문

이 있을 것이다. 바로 '가장 평화적인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가 과연 군대와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

사관학교 불교 프로그램 팀장인 사라 벤더(Sarah Bender)는 "항상 야군을 지키기 위해 적군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많이 했다. 그러나 사관학교 불교 프로그램 팀장인 사라 벤더(Sarah Bender)는 "항상 야군을 지키기 위해 적군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많이 했다. 그러나 사관학교 불교 프로그램 팀장인 사라 벤더(Sarah Bender)는 "항상 야군을 지키기 위해 적군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많이 했다.

텐진에 '北소림사' 중건 된다

쑹산 소림사 1억6000만 위안 들여 공사

쿵푸의 본고장인 중국 소림사(少林寺)가 텐진(天津)에 북(北)소림사 중건에 나선다.

중국 일간지인 정주만보(鄭州晚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림사가 1억6000만 위안(276억 원)을 들여 텐진 판산(盤山) 풍경구에 북소림사를 중건하기로 했다.

소림사는 북소림사 중건을 위해 2007년 텐진시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공사 계획을 확정지었다.

소림사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

해 북소림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님들이 있는 건물에는 인터넷, 태양열전기, 냉난방 시설 등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소림사 측은 "북소림사는 쑹산 소림사 이외에 유일하게 '소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소림사의 지사(支寺)로, 중건을 통해 당송(唐宋)시대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할 것"이라며 "완공되면 당송시대 소림사의 품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림사는 지난 2월 홍콩 분원을 세우기로 하는 등 사세(寺勢) 확장에 의욕을 보여왔던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옛 소림사의 명성에 기대지나선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된 것.

소림사는 쿵푸 쇼와 영화제작은 물론 사찰음식과 의약품 판매에 나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또 2010년에 병원을 개업하고 소림사 전통 방식의 기능성 차와 음료 시판 사업에도 진출키로 했다.

이냐은 기자

연화직업재활원 우수중소기업 선정

압화 공예품 눈길... 청각장애인 제작 출품한 업체 광림사 연화원 등 4곳

"어머~ 아가지기한 것이 예쁘네요 이게 다 뭐죠?" "생화를 말라서 직접 손으로 제작한 압화(押花) 제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 해성)이 한 수출상담 부스에서 재외동포 기업인들에게 압화(꽃누름)로 직접 제작한 다구, 찻잔, 악세서리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바이어들은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샘플로 제품을 여럿 구매하기도 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독특하다며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광림사 연화원 연화직업재활원이 국내 230개 우수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돼, 10월 22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2009 제1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했다.

연화직업재활원은 직업을 찾거나 사회활동 참여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적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압화(꽃누름) 교육을 실시해 공예품을 생산하는 곳.

연화원이 참가한 세계한인경제인 대회는 50여 나라 800여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와 200여 국내중소기업체와 함께 수출상담회 자리를 갖는 국제적인 무역축제의 현장이다.



왼쪽에서부터 연화직업재활원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디자인 하고 제작한 원형손거울과 개인 머그잔. 해성 스님이 미국 재외동포 기업인에게 상품설명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연화원이 참여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상품을 제작해 출품한 업체는 연화원을 포함해 4곳 뿐이라는 의미가 크다.

연화원의 대회 참가를 계기로 일반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일반 기업의 제품과 견주어 우수함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화원이 출품한 압화 상품은 시계, 액자, 악세서리, 부채 등 여러 생활용품 15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꽃 채집, 디자인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손수 제작한 것이다.

김양은 서울시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경영지원센터 팀장은 "서울산업

통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9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선정하다 연화원의 압화 제품이 독특해서 추천했고 대회참가 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화원 부스를 둘러본 독일재외동포 경제인 줄리엣 리는 "악세서리나 거울 등이 예쁘고 이미지가 특이하다. 상업적인 느낌보다 예술적인 면이 더욱 돋보이고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에서 인터넷으로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박성혜씨는 "생화를 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독특하다. 제품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을 갖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

불교계 장애인 직업재활에 앞장서 온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광림사 주지)은 "압화 제작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디자이너, 사업가, 압화강사 등 여러 가지일을 할 수 있어 앞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행사의 참여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애인들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2)221-5831 이냐은 기자

지역사회복지축제

금요복지관 29~30일

경북 구미지역주민이 참여해 복지 마인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 마련됐다.

금요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동)은 10월 29~30일 '지역사회복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어르신날'을 테마로 한 문화공연,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0일에는 '지역주민의 날'을 테마로 관장 박동 스님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054)458-0230 이냐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요양시설 건립

광주 나눔의집 31일 준공식 개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요양과 재활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이 건립된다.

광주 나눔의집(원장 윤희영)은 10월 31일 경 내에서 대표이사 윤희 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장 윤희 스님(금산사 주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집 요양시설 준공

식을 개최한다.

윤희 스님은 "고령 및 성노예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요양과 재활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31) 768-0064-5 이냐은 기자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이 입소하게 될 전문 요양시설 조감도

생명나눔 15주년

나눔의 날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10월 18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2009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BBS 김병조의 이야기쇼' 특별공개방송이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지난 15년간의 시간을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하며 생명나눔을 꾸준히 후원해준 회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을 실천하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2)734-8050 이냐은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현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진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선도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땀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컵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갈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가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서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수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4차 : 환신 받고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서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신청순으로 접수합니다.)